



어린 시절 어른들이 나에게 맞추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보다 크고 힘센, 여유로운 그들이 작고 어린 나에게 맞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금요일 마다 야학에서 어른들을 마주하며 나는 어머니를 위해 한숨을 거르고  
있다. 처음 나는 어머니가 아주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들  
낯설게 한다는 것은 알고 몹시 당황하였다. 어머니들에게 말하곤 했을 때  
공부해가며 쉽게 알려드리려 무지 애를 썼다. 이내 어머니들은 나에게 '생생함이 늘 있어  
좀 때 췌에 살짝 들어라' 라고 이야기 하였고, 나는 늘 이것이 나의 사랑임을 깨달았다.  
눈가는 위해 무릎과 허리를 굽히며 눈을 맞추는 것, 이제는 그것이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임은 안다. 이것이 눈가를 위한 사랑이 아닐까?